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출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초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책임> 편지지)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03 호

서기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무조건 좋게 살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오늘은 한자리 한 분들이 모두 청년들일세. 법당뿐만 아니라 강당에 앉아서도 모두가 한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이니까 더더욱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좀 깊이, 우리가 평상시에 어렵지 않게 살면서도 한번 뒤집는 것을 생각해 봐요. 뭘 가지고 뒤집는다고 그러느냐 하면, 항상 얘기하듯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될 때에 '잘될 거다' 하고 뒤집는 거 말아야. 반면에 잘못될 걸 알면서도 무조건 잘될 거라고 뒤집는 거, 이건 공부하는 스님들도 그렇거나와 사회적으로도 아주 필요해요.

**우**리는 과거 정신적이고 현실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포함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자기를 쓰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짓고 일을 하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고 모레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자기관, 살아나기는데 결정적으로 일을 하고 결정을 짓고, 모든 것을 바꿔서 일을 하는 자기가 있어야.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자기 뿌리, 나무의 뿌리와 같이 자기 아닌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움직여라고 말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 자기 아닌 자기있어

그런데 지금 이걸 잘못된 거다, 이걸 잘못된 거다 하고 똑똑하게 따지는 것을 사회인이라고 하죠. 똑똑하게 못 본다면 사회인으로서 못살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회사 말을 하느냐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회사 하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다 못해 애들까지도 살수가 없게 가정에서 울며 기가 막혀서 가슴에 멍이 들어 애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 번에 보니까 받을 돈은 많지만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슨 이게 옳고 그거 옳고 이렇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자성불이 통신을 해서 아래로, 즉 말하자면 하늘과 땅, 풍신, 용신들이 한데 합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돈 못 받던 사람도 받게끔 일이 퍼지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해야 회사뿐이 아니라 사회뿐이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자리를 잡아야 저 불국사의 다보탑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자기 몸 안에 다보탑이 되어 있다. 아주 맥반석처럼 튼튼하게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주장자라고도 하고 한자리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이죠. 무조건 결정을 지어야죠. 그것은 사람이 한 두백이 아니라 가정도 한 두백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결정을 지어야죠. 군 소리가 필요 없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그 생각이 천지를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실하게 다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을 통하고 용신을 통하고 전부 통해서 통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순간이죠. 한 찰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그리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옳고 그르고를 다 놔 버린다면 필로 사느냐' 이러겠어요? 뭘 가지고 사느냐고 하지만 놓으라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놓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는 밥을 굶는 데다가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굶지 않고 꼭 먹어야 돼 하고 아예 결정을 지어 버린다면 꼭 먹게 되죠. 그런데 못 먹게 결정을 지어 버리기 때문에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참 위대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자유스럽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도 못 벗어나서 어질어질하고 피곤하게 산다면 그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자기 기를 살려서 쓰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쓰니까 모두 더불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약한 일이 상대방에 있거나 어떤 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 면 선하게 주인공자리에서 해결을 하도록 항상 뒤편지 놓고 믿어야 되겠어요. 이 소리가 우습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세세생생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력을 얻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하는 분들은 식구들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건지는데도 능력이 주어져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생각하세요. 차근차근 하니까 나중부터 열까지, 조그만 거든 큰 거든지 이유를 따지지 말고 자기 앞에 딱치면 딱치는 대로 그냥 맡겨 놓되 결정이 되면 잘 되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옛것처럼 얘기한다면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낸 사람은 참 가난하고 어려운 데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조건 된다고 해라. 무조건 된다고 한다면 그 쪽의 마음도 달라고 너의 마음도 달라고 결정적인 일이 성사가 된다. 아니냐 다들, 그 쪽에서 상황을 조사해 보고는 보시한 셈 천다고 하고선 발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지 않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내가 결정을 쓰면서 그 쪽 마음도 달라고 모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살아온 습이 있어서 화를 내기 좋아하는데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 화내는 자리가 잡혀 있어서 아무리 화내지 않을 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잘 안돼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냥 왕창 무조건 끊어요. 그냥 끊어 버려요. 화 안 내게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해야 하고 선 그냥 끊어버려요. 잘 되게 하는 것도 잘 못되게 하는 것도 양면이 다 잘 되게

하는 거니까 결정을 짓고 그냥 그냥 끊어서 결정을 해요. 이유를 붙이지 말아요. 공부하는 스님들은 더 더욱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가 완전히 잡혀야 무심코, 공부 가다 되면 누구한테나, 길거리에 가다가도 그냥 마음이 그 쪽 생각도 들어보지 않고 결정을 지어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쪽의 원소는 다 알고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이, 정신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를 따진다면 공부 못해요. 진짜 사람이 못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식구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잘못되면 식구 전체가 거지가 될 판인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발발발발 떨

나오기 이전에 조상들이 잘못해서 유전되어 된 문제들은 해결 못해요. 그리고 말도 못한다고요. 그거 말을 하면 무구리쟁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남이 해 줄 때를 바라는 건 안되죠. 누구든지 대신 못 살아준다는 건 아시죠. 결정적인 문제를 단호히 뒤집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될 거를 뒤집는다고 되느냐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왜냐? 상대방도 달라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말하는 어떻게, 말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리만큼 귀해요. 자기 주인 공이 자붙이라고 그러죠. 주장자라고도

다니면서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물질계의 자기를 기르면 발 두짝이 한 짝 못한다고요. 그거 말을 하면 무구리쟁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남이 해 줄 때를 바라는 건 안되죠. 누구든지 대신 못 살아준다는 건 아시죠. 결정적인 문제를 단호히 뒤집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될 거를 뒤집는다고 되느냐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왜냐? 상대방도 달라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말하는 어떻게, 말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리만큼 귀해요. 자기 주인 공이 자붙이라고 그러죠. 주장자라고도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시고 안되든 되든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해 나가면 몸에 마음에 배이게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이런 법이 있었단가 하고 하늘을 쳐다 보고 하루 종일 울다가 땅을 내려다보고 웃었어요. 이런 근중환 법이, 남도 모르는 법이 있었을까? 하고 쳐다보면 눈물을 하얗게 흘리다가 물 흐르는 걸 보고 너무 웃음이 나서 웃었어요. 이렇게 인생이 물 흐르는 거와 같은 거를 내가 발버둥을 쳤구나 하는 생각에서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살 때는 미래도 생각지 않고 이 공부 가 뭔지도 생각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게 그냥 도에요. 살이 도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딱 자리가 뒤집어진 사람은 바로 가는 거죠. 바로 놓는 거예요. 뒤집어진 자리를 제자리에 바로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돌에도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보면은 그걸 알게 되죠. 물에 사는 생명들도 꼭 살아야겠다 하고 결정되면 거기에 관리를 다 하시고. 그래서 해수관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무조건 큰돌이 물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냥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해수관음으로 깨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쪽으로 들어가면 그 쪽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쪽으로 하나가 돼요. 이해가 안가시죠. 영이 만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개를, 만개가 각각 화해가 되는데 가진 각색으로 건너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바뀐지 않으면 안되죠. 그래서 찰나찰나 화해서 바뀌어 가지고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살의 용신이 되실 수 있는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빼고 걸 수도 없고 문도 꼭 열고 들어오고 육안으로 열고 들어오고 하지만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분장도 문이 되고 옆도 문이 되고 다 문이 돼요. 사람의 털구멍도 문이 돼요.

말로만 듣고 경험을 못하신다면 참 억울하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무조건 열심히 해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무조건이예요. 나는 그냥 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거. 동자를 키워야 된다는 거. 자기가 자꾸 해봐야 키워지죠. 그러니까 동자하고 자기하고 둘이 아니죠. 그러면 모든 데 다 통해요.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 물에 있는 용신도 내가 되고 내가 용신도 되고, 바뀌어서 개구리가 되려면 개구리가 되고 건지려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진행을 안 해봤으면 이해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 봐야 '이렇게구나' 하고 눈물도 저절로 나오고 웃음도 저절로 나오고 기가 막혀서 깔깔깔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도 짐승들의 삶이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좀 진화돼서 사람이라는 이

름을 가졌을 뿐이죠.  
질문: 저는 예전에는 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운 경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며 때로는 남의 탓을 하고 나중에는 문제를 피하려고 그런 내 자신이 싫어 계속 나를 구박하는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나 '공부를 하다 보니가 좋다' 나쁘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반대로 모든 근심 걱정 때문에 자꾸 벗어나고자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운 경제들이 나를 성숙시켜 주는 나들임을 알고 돌 아나기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고 또한 경제를 통해 내가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원인으로 모른 채 두통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여름 청년연학수련회 이틀 전에 갑자기 병원의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결과는 뇌하수체종양이라며 종양 크기로 봐서 수술의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뇌를 수술해야 한다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웬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뇌 사진을 다시 병원과 인연되는 사람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수술을 안 하면 종양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명을 하게 되며 지금보다 더한 두통을 느끼게 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되면은 동맥근처럼 더 커지게 되면서 수술조차 어려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 직접 실천해야 진화

예전 같으면 수술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수술을 받았겠지만 이 법을 공부하면서 수술 여부에 대한 생각을 신중히 잘 결정해야겠다 싶어 선연히 계신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저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몸과 마음이 틀어지지 않게 몸은 마음의 표현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병은 이름일 뿐이고 불연하고 힘들어진 이 마음이 해결이 안되면 누적이 되어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병이라는 이름에 휘말리지 말고 병이 생기게 한 그 근본원인을 알아 해결하게 됨으로써 병이 난 원인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지금 내게 딱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이 난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가정문제나 대인관계에 순응하지 않고 저의 좁은 식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는 풀리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을 보며 스스로 자책하고 힘들게 이끌어온 의식들이 안으로 응어리져 종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란 이름일 뿐이고 제 안에 잠재된 원인들이 그대로 남아 용출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술로 결과물만 떼어 낸다면 근본원인이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회두로 삼아 공부한다면 병과 가 아닌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사 보살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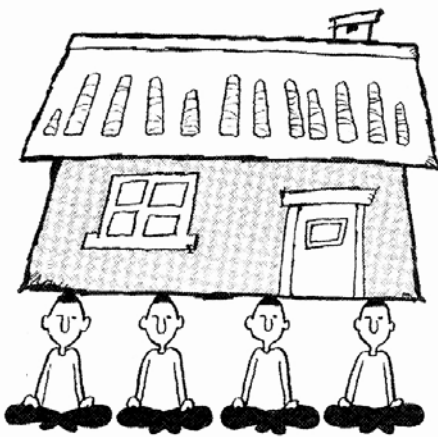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 잘못될 것 같은 생각들때 잘 될거라고 뒤집어 보는 묘법이 아주 필요합니다

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공부하는 동생이 "형이 안되면 누가 돼, 식구가 다 굶을 거야. 왜야해." 하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주 웃음이 만발해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형 됐지." 벌써 이런 소리로 안하고. "형 잘 다녀왔어?" 하니깐 "잘 다녀오고 말고 무슨 덕인지 몰라. 그냥 어떻게 쉽게 됐는지 몰라." 결정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건데 결정이 저쪽에서부터 그렇게 쉽게 나오니까 무슨 백을 가졌길래 그러냐고 그러고 뒤에 대동령 백을 가렸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 억지로 못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써먹는 거예요.

### 진짜 사람이 되는 법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급하게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루어주어야 할지. 얘기를 해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느라고 10년 20년 30년 40년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안돼서 자기 동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죠. 믿지 못해서 생각을 옮겨 했다가 다시 돌려서 옮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만 못 나오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허다 많아요.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이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만 앉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부처님들도 깨우친 선사들도 다 계십니다. 안 보시죠. (대중웃음) 주장자를 탕탕 벌세 번이나 울렸어요. 똑바로 먹게 하려고요. 집어먹어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가 제일 으뜸 가는 공부죠. 달마대사가 죽지 않을 건데 죽어줘야 그 사람들이 편하겠으니까 우정 죽어줬죠. 그래서 갖다 물어왔어요. 갖다 물어왔더니 그걸 가르칠 수가 없죠.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신발 한 짝은 거기 남겨 놓고 신발 한 짝을 주장자에다 걸고

기쁜 안부를 남기고 싶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 삶은 고(苦)가 아니다



ASIN 288쪽  
값 6,000원  
여서준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